주일 메시지 요약 **2025년 1월 4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딤전6:11-21

원단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단어들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주신대로 아침에는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고 낮에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만남이 일어나고 밤에는 인생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깊은 기도의 시간들이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 적으로는 300%의 사상과 정신으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운동에 임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30분 일찍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말씀을 받는 예배가 매주 일어나고 말씀 운동에 참여하고 다락방과 지교회 운동을 통하여 많은 현장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되고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3번이란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신이 300% 정신입니다. 우리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그런 영적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축복이 올 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 너 하나님의 사람아

1)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기준이 낮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인데 그의 입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2) 디모데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으며 그의 기도 세계는 과연 어떠했을까. 기도는 행위지만 사실은 사람인데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의 안테나는 24시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겠다는 결심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백성을 섬기고 자신을 끝까지 낮추고 그들 중에서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전도자로 키우는 일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았을까.
3) 바울의 현장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이 그의 가슴과 마음에 절대적인 언약이 되고 그림으로 남아 있어서 가야 할 곳이 분명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에도 분명한 눈이 열린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조용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모든 것을 기도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 받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4)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인간 표본의 사람이 “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20절에서는 “디모데야” 라고 말했습니다. 단순 제자 스승의 관계였다면 이런 말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눈에 정말로 귀한 존재로 보였다는 것을 한 마디로 표현한 말일 것입니다.
5) 11절 오직 너 하나님이 사람아,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6) 디모데가 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해야 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함께 인생 중에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불신앙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13절 만물의 생명의

주인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7) 그리고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이라고 말한 내용은 6장1절부터 10절까지 하신 말씀을 말할 것입니다. 1절 멍에 아래 있는 종 즉 자신은 믿지만 자기 상전은 믿지 않는 경우에는 상전을 잘 공경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하시고 2절은 상전도 믿고 종도 믿는 경우에는 상전을 형제라고 생각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고 하십니다.

9) 3-5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십니다. 돈이 신이 된 세상에서는 그렇겠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돈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받고 누리고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10) 그래서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말씀 하나 하나를 세밀하게 읽고 자신을 돌아보고 갱신하여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11)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는 세상의 소리나 인간의 지식은 듣지 말라는 뜻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12) 원단 1강 서론에서도 말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이었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고 어디에 있어야 하겠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원단 전체 메시지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성취하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누리고 거기에 있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13) 이것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고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감당할 만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자세로 살아야 하고 어떤 육신적인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 시대적인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올 해 2026년 한 해 동안 누릴 중대한 언약이 발견되길 바라고 그것을 능히 누릴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하는 집중 기도회와 릴레이 기도에 마음을 담은 기도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